

12.3 불법게엄 저지 1년
시민헌정 아카이브전—
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

2025.12.3.—2026.4.4.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3층
잡은펼쳐보임방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부산에서 시민의 빛 타오르다

2025.12.3.—2026.4.4.

주최

 부산시민추진위원회

시민추진위원

식민지역사박물관

 워라카오

주관 및 전시기획

 민주공원

문의 민주공원 교육문화팀 051-790-7482

 부산시민추진위원회
The Busan Citizens' Movement Association

시민추진위원 명단

큰기 추진위원

개인

구민영 김경은 김권수 김기영 김성훈 김종기
김호진 문민철 박조흥 박진호 백광현 신광호
오세자 오정하 유영란 윤유상 윤준호 이성열
이진욱 이호욱 이흥재 이희길 정일민 정한섭
조기종 조영호 차성수 차성한
익명후원1 익명후원2

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문어빵연구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공원노동조합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경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윤석열퇴진청소년행동
부산지하철노조
(사)부산여성회
전교조 부산지부
전국갱년기연합
전국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산본부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산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부경본부
전국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청년, 오늘

응원봉 추진위원

개인

강영진 강찬 김경환 김길후 김나희 김미경
김민화 김부민 김선아 김인수 김재홍 김종삼
김종선 김태만 김현지 김호민 남재우 리인수
목승혜 문정영 문제원 문종석 박선우 박주희
박지선 박지원 박진영 박혜영 설동일 설수진
손규호 송운영 신은정 심인섭 오치현 원준배
유반야 유선욱 유양선 유한별 이동문 이동일
이동훈 이보람 이봉미 이상용 이원규 이재호
이중현 이지영 이필숙 장선화 장세진 장형근
전영주 정다솜 정영인 지은주 차철욱 최상찬
최은정 최준영 최현덕 한지호 허원석

단체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다시 만난 우리, 다시 만날 세계

이동일 민주공원 관장

1년 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충구를
막았습니다. 학살의 기억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장갑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앞서나간 전사의 의지가 우리의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윤석열 세력이 또 다른 전두환, 또 다른
박정희, 또 다른 이승만, 또 다른 총독부가
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공동체를
숨 막히는 어둠으로 몰아넣으려 할 때
우리는 저항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민주투사, 또 다른
독립투사가 되어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우리 공동체를 바람 드는 광장으로 끌어
올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좌우로 나뉠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에서 우리는 세대 간의
새로운 만남에 감동했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었습니다. 고비를 넘긴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민주적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2024년 12월 부산 광장 자유발언의 일부를
소개하며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끝이고 해결이고
완성이라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생존권 보장, 차별과 혐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만날 우리의 새로운 세계를 위해
잡은 손 놓지 맙시다.

민주부산의 후예로서 당당하게 일떠선
부산 시민 여러분께 이 전시를 바칩니다.



시민추진위원
보러가기

부산 지역의 광장, 역사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 헌정 질서가 흔들리던 순간 부산의 시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12월 3일부터 부산에서 이어진 시민 행동과 사회의 변화를 기록한 타임라인, 그리고 당시 현장을 지켜낸 시민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타임라인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연대와 기록의 과정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지도입니다. 또한 현장을 생생히 증언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사회의 증거입니다. 시민의 결단과 연대가 모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빛이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빛의 광장, 응원봉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 시켰습니다! 123일, 마침내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수많은 극우내란세력들의 방해 공작을 제압하고 내란수괴를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대)파와 (라)면을 들고 사진 찍는게 유행처럼 퍼져 나갈때, 손피켓에 파와 면을 넣어 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된 손피켓
디자인: 신성호(뽀라카노 운영위원)

광장의 오브제

2024년 12월,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모였을 때, 그들의 손에는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된 깃발, 손피켓, 스티커, 응원봉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민의 의지와 연대가 담긴 행동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광장의 오브제 부문은 민주공원과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수집한 시민행동 관련 자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피켓과 스티커, 깃발, 옷 등의 물건들은 광장이 개인의 감정과 사회적 열망이 교차하는 공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물건들은 집단의 목소리가 시각화된 시민 기록물이자, 민주주의의 현장을 증언하는 실물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민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응원봉과 민주주의 깃발 일러스트 배지
배지 제작: 김나영

123일 시민의 기록

12월 3일부터 시위 현장을 기록한 시민 영상 프로젝트 <뽀라카노> 채널의 영상을 상영합니다. <뽀라카노>는 빛의 항쟁 속에 피어난 청년 미디어 채널로 그날 현장의 공기와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담아낸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영상들은 12월 3일 시위와 이후의 시민 행동을 생생히 담고 있으며, 거리의 표정, 피켓과 깃발, 그리고 함성의 순간들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언론 보도를 넘어서, 시민 자신의 증언이자 기억의 영상입니다.



[123일 다시보기] 파면까지 123일,
50번의 부산시민대회, 6분 9초



윤퇴진부산비상행동 상임대표단의 감사인사와
입장문 발표, 4분 13초

시민의 빛.
부산에서
다오르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

전시는 시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관람객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기록의 주체’로서 함께 참여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시민이 직접 깃발을 만들고, 아크릴 응원봉을 만들며 자신의 메시지를 더합니다. 또한 전시 소감을 남기고, 다른 시민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12월 3일부터 내란 종식 선언까지 시민 정신을 오늘로 이어가는 작은 실천이자 ‘시민의 빛’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곳에 남겨진 시민의 손길과 기억은 민주주의의 기록이자, 내일을 향한 또 하나의 빛이 됩니다.

상설 체험 프로그램

① 나만의 깃발 만들기

작은 깃발에 그날의 기억이나 전시 관람 후기를 담아 나만의 깃발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 깃발에 응원 문구, 그날의 기억,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거나 그림 그리기

② 나만의 응원봉 굿즈 만들기

추운 겨울 부산 서면 빛의 광장을 밝힌 응원봉을 미니 사이즈 키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입니다.

— 원하는 재료를 골라 나만의 응원봉 아크릴 키링을 만들어보는 체험

특별 프로그램

① 특별 전시 해설 & 12.3 아카이빙 굿즈 (슈링클스) 만들기

12.3 불법계엄 저지 1년 시민헌정 아카이브전 <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 전시 해설과 함께 불법계엄 저지 1년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소요시간 약 2시간)

※ 2026년 1월은 1월 10일 진행

— 인원: 회당 15명 이내

— 신청: 민주공원 홈페이지 참고

www.demopark.or.kr

12월 3일 불법계엄에 관한 선고 결정문

12월 3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 질서와 시민 주권 회복을 선언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선고 결정문은 국가 권력이 헌정 질서를 위협할 때, 그에 맞서 싸운 것은 결국 시민의 의지와 행동이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법정의 언어로 기록된 이 문장은 광장 시민이 외쳤던 “민주주의는 우리 것이다”란 외침이 현실로 이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전시장에 공개된 선고 결정문 요약본은 그날 시민 행동이 남긴 구체적 결과이자 민주주의가 제도 안으로 복원된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민의 힘, 시민의 승리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국가는 시민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발췌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출처: 헌법재판소(2025년 4월 4일)



주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시민추진위원
식민지역사박물관
뽕라카노
(사)부산민예총

관람시간
화-일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날 당일 휴관

주관
민주공원

전시진행
김선아 이봉미 이보람

문의
민주공원 교육문화팀
051-790-7482
www.demopark.or.kr



이 전시는 시민추진위원의 후원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12.3 불법계엄 저지 1년
시민헌정 아카이브전—
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

2025.12.3.—2026.4.4.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3층
잡은펼쳐보임방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2025.12.3.—2026.4.4.

주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시민추진위원
식민지역사박물관

뽕라카노

(사)부산민예총
The Busan People's Arts Association

주관 및 전시기획 민주공원 문의 민주공원 교육문화팀 051-790-7482